

보 도 자 료



121-9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45(KBS 미디어센터빌딩) www.kmi.re.kr

■ 수산연구본부장 정명생 Tel (02)2105-2847/Fax 2105-2859

FTA이행센터 임경희 Tel (02)2105-2852/Fax 2105-2859

대외협력·홍보실 엄선희 Tel (02)2105-2747/Fax 2105-4990

이 자료는 배포 시부터 보도가 가능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 FTA 발효 1년』 주요 수산물 교역 동향 분석

“미국 수산물 수입 늘었다.”

금액기준 15% 증가, 수입은 감소추세

◇ 한·미 FTA 발효('12.3.15.) 이후 '13년 1월 31일까지 미국산 수산물의 수입은 15.47% 증가(147,637천\$ → 170,472천\$)하였고, 對미 수산물 수출은 1.64% 감소(165,296천\$ → 162,582천\$)하였음

○ 對미 수출은 미FDA의 굴 수입 제한('12.5~'13.2)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굴을 제외하면 10.72% 증가하였음

◇ (수입) 관세율 할당(Tariff Rate Quota, 이하 TRQ) 품목(명태, 가자미 등)과 관세혜택품목(먹장어, 홍어, 정어리 등)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함

* 명태(35,743천\$→44,446천\$, 24.35% ↑), 가자미(20,597천\$→26,455천\$, 28.44% ↑), 민어(43\$→191천\$, 444,202.33% ↑)

* 먹장어(10,192천\$→12,242천\$, 20.11% ↑), 홍어(7,355천\$→8,315천\$, 13.05% ↑), 정어리(420천\$→2,008천\$, 377.58% ↑)

○ 민감품목인 가자미, 민어는 FTA 발효 이후에도 국내생산 감소로 인해 산지가격이 상승하였고, 명태는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이는

수입 증가보다는 국내 재고물량 증가의 영향이 작용

- * 가자미 산지가격(원/kg) : ('11.4~'12.1) 7,813→('12.4~'13.1) 8,045
- * 민어(활어 제외) 산지가격(원/kg) : ('11.4~'12.1) 5,783 → ('12.4~'13.1) 8,322
- * 명태 산지가격(원/kg) : ('11.4~'12.1) 1,380 → ('12.4~'13.1) 1,178

- 당초 수입 증가가 예상된 대구(8,311천\$→7,196천\$, 13.41%↓), 아귀(13,225천\$→12,173천\$, 7.95%↓) 등은 FTA 발효 이후에 수입이 감소하였음
- 관세인하로 수입이 늘어난 품목들은 국내 생산이 미미(떡장어)하거나, 이미 공급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홍어, 볼락)하는 품목이던지 또는 다른 국가의 수입을 대체(정어리, 가오리)함

◇ (수출) 對미 수출중점품목(김, 다랑어 등)의 경우 관세혜택으로 수출이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붉은대게살, 활넙치 등)의 수출도 늘어났음

- * 김 : 35,382천\$→48,037천\$, 35.76%↑, 다랑어 : 2,918천\$→3,542천\$, 21.38%↑
- * 붉은대게 : 1,055천\$→5,475천\$, 419.04%↑, 활넙치 : 3,881천\$→5,366천\$, 38.26%↑
- 단, 지난해 수입 제한 조치가 취해진 굴의 경우 금년 조치가 해제된 만큼 이후 굴(통조림)에 대한 관세혜택((기준세율) 4.7% → ('12년) 4.2% → ('13년) 3.7%)이 기대됨

※ 주요 통계 수치의 비교 기간은 '11.3.15 ~ '12.1.31까지와 '12.3.15 ~ '13.1.31까지입니다

- 한 · 미 FTA 발효 1년 -
주요 수산물 수출입 동향 분석

2013. 3.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 주 요 내 용 》

- ◇ 한·미 FTA 발효('12.3.15.) 이후 '13년 1월 31일까지 미국산 수산물 수입은 15.47% 증가(147,637천\$ → 170,472천\$)하였고, 對미 수산물 수출은 1.64% 감소(165,296천\$ → 162,582천\$)하였음
 - 對미 수출은 미FDA의 굴 수입 제한('12.5~'13.2)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굴을 제외하면 10.72% 증가하였음
- ◇ (수입) 관세율 할당(Tariff Rate Quota, 이하 TRQ) 품목(명태, 가자미 등)과 관세혜택품목(먹장어, 홍어, 정어리 등)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함
 - 민감품목인 가자미, 민어는 FTA 발효 이후에도 국내생산 감소로 인해 산지가격이 상승하였고, 명태는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이는 수입 증가보다는 국내 재고물량 증가의 영향이 작용
 - 당초 수입 증가가 예상된 대구(8,311천\$→7,196천\$, 13.41%↓), 아귀(13,225천\$→12,173천\$, 7.95%↓) 등은 FTA 발효 이후에 수입이 감소하였음
 - 관세인하로 수입이 늘어난 품목들은 국내 생산이 미미(먹장어)하거나, 이미 공급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홍어, 볼락)하는 품목이던지 또는 다른 국가의 수입을 대체(정어리, 가오리)함
- ◇ (수출) 對미 수출중점품목(김, 다랑어 등)의 경우 관세혜택으로 수출이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붉은대게살, 활넙치 등)의 수출도 늘어났음
 - 단, 지난해 수입 제한 조치가 취해진 굴의 경우 금년 조치가 해제된 만큼 이후 굴(통조림)에 대한 관세혜택((기준세율) 4.7% → ('12년) 4.2% → ('13년) 3.7%)이 기대됨

I. 미국산 수산물 수입 동향 분석

※ 주요 통계 수치의 비교 기간은 '11.3.15 ~ '12.1.31까지와 '12.3.15 ~ '13.1.31까지임

□ (수입동향) 한·미 FTA 발효 이후 '13년 1월 31일까지 미국산 수산물 수입은 전년 동기('11.3.15~'12.1.31) 대비 15.47% 증가

○ 한·미 FTA 발효로 관세 혜택이 큰 품목(먹장어, 정어리, 볼락 등)*이나 TRQ 품목(명태, 가자미, 민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

* 먹장어(10,192천\$ → 12,242천\$, 20.11%↑), 정어리(420천\$ → 2,008천\$, 377.58%↑), 볼락(2,051천\$ → 3,243천\$, 58.11%↑)

** 명태(35,743천\$ → 44,446천\$, 24.35%↑), 가자미(20,597천\$ → 26,455천\$, 28.44%↑), 민어(43\$ → 191천\$, 444,202.33%↑)

○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11.3.15~'12.1.31) 대비 6.58% 증가(50,703톤 → 54,038톤)

○ 수입액 상승은 주요 수입품목의 단가 상승* 등이 원인

- 對미 평균 수입단가가 8.34% 상승하였고, 명태, 먹장어, 정어리 등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단가도 상승

* 對미 수산물 수입단가(\$/kg) : ('11.3.15~'12.1.31) 2.91\$ → ('12.3.15~'13.1.31) 3.15\$

* 對미 명 태 수입단가(\$/kg) : ('11.3.15~'12.1.31) 2.85\$ → ('12.3.15~'13.1.31) 3.27\$

* 對미 먹장어 수입단가(\$/kg) : ('11.3.15~'12.1.31) 3.79\$ → ('12.3.15~'13.1.31) 4.48\$

* 對미 홍 어 수입단가(\$/kg) : ('11.3.15~'12.1.31) 5.98\$ → ('12.3.15~'13.1.31) 6.21\$

* 對미 가오리 수입단가(\$/kg) : ('11.3.15~'12.1.31) 2.36\$ → ('12.3.15~'13.1.31) 2.63\$

* 對미 정어리 수입단가(\$/kg) : ('11.3.15~'12.1.31) 0.84\$ → ('12.3.15~'13.1.31) 1.09\$

□ (국내영향)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우리 수산업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

- ① 한·미 FTA 민감품목인 가자미, 민어는 FTA 발효 이후에도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산지가격이 상승하였고, 명태는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수입 증가보다는 국내 재고 물량** 증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

* 가자미 생산량 : ('11.4~'12.1) 17,024톤 → ('12.4~'13.1) 15,872톤, 6.77% ↓

* 민어 생산량(활어 제외) : ('11.4~'12.1) 15,443톤 → ('12.4~'13.1) 12,575톤, 18.6% ↓

** 명태 재고량 : 2012년 약 11만 톤 유지(평년 4만 톤)¹⁾

*** 가자미 산지가격(원/kg) : ('11.4~'12.1) 7,813 → ('12.4~'13.1) 8,045

*** 민어(활어 제외) 산지가격(원/kg) : ('11.4~'12.1) 5,783 → ('12.4~'13.1) 8,322

*** 명태 산지가격(원/kg) : ('11.4~'12.1) 1,380 → ('12.4~'13.1) 1,178

- ② 관세 인하로 수입이 늘어난 품목들은 국내 생산이 미미(먹장어)하거나, 이미 공급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홍어, 볼락)하는 품목이던지 또는 다른 국가의 수입을 대체(정어리, 가오리)

□ 품목별 영향 분석

- (TRQ 품목) TRQ 품목인 가자미, 명태, 민어는 FTA 발효 후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가자미의 TRQ만 소진되고 명태와 민어는 미소진

- (가자미)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TRQ* 할당량의 전량 소진으로 기타가자미(냉동)의 수입**이 대폭 증가

* 가자미(기타냉치(냉동)) 협상 결과(터봇 포함) : 기준관세(10%)유지+TRQ('12년 1,530톤에서 '21년 3,303톤으로 연차별 확대, '22년 이후 관세 철폐)

** 對미 가자미(기타냉치) 수입 : 19,168천\$ → 24,539천\$, 28.02% ↑ / 기타냉치 세부수입 품종²⁾ : 각시가자미(95.15%), 까지가자미(1.88%)

- (명태) 냉동명태에 대한 TRQ* 할당으로 전년 대비('11.3.15~'12.1.31) 냉동

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한·러 어업협상 결과 및 명태 수급전망, 2012.11.21) 참조

2) 수산물안전부 검사검역통계의 2012년과 2013년 검사물량 기준

명태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명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냉동명태 협상 결과(기타명태 포함) : 기준관세('21년 까지 30% 유지 후 매년 6% 삭감, '26년 관세 철폐)+TRQ('12년 4,000톤에서 '25년 12,263톤으로 연차별 확대)

** 對미 냉동명태 수입 : 229천\$ → 5,292천\$, 2,209.33% ↑

*** 우리나라의 국가별 명태 수입 비중('12.3.15~'13.1.31 수입량 기준) : 러시아(91.26%), 미국(5.87%), 일본(2.59%)

- (민어) FTA 발효 전에는 수입이 미미하였으나, FTA 발효 후 TRQ* 배경으로 냉동민어 소량 수입**

* 냉동민어 협상 결과 : 기준관세('19년 까지 63% 유지 후 매년 15.8~15.7% 삭감, 2023년 관세 철폐)+TRQ(2012년 1,000톤에서 2025년 1,629톤으로 매년 5% 증량)

** 對미 냉동민어 수입 : 43\$ → 191천\$ / 대세계 수입 비중(수입량 기준) : 1.19%

한·미 FTA TRQ 품목의 수입 동향

단위 : 톤

품명	2012.3.15~12.31			2013.1.			비고 (HSK 2012)
	TRQ물량(A)	수입량(B)	B/A	TRQ물량(A)	수입량(B)	B/A	
가자미 (기타넙치)	1,530	9,740	636.58%	1,652	3,175	192.16%	터봇(0303-34-0000) 기타넙치(0303-39-0000)
명태	4,000	1,291	32.27%	4,360	85	1.95%	명태(0303-67-0000) 기타(0303-69-9000)
민어	1,000	89	8.86%	1,050	0	0%	민어(0303-89-9091)

○ (관세혜택품목) 관세인하혜택이 큰 품목 중 먹장어, 홍어, 정어리 등의 수입이 증가

- (먹장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로 먹장어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생산이 적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국내 영향은 미미3)

3) 對미국 먹장어 수입은 활어와 냉동으로 양분되는데, 분석대상기간 동안 활먹장어의 수입은 금액, 물량 모두 증가한 반면, 냉동먹장어의 경우 단가 상승으로 수입액만 증가하고 물량은 보합세를 유지

* 對미 활묵장어 수입 : 6,022천\$ → 7,222천\$, 19.94% ↑ / 관세 감축폭 : (기준) 10% → ('12년) 6.6% → ('13년) 3.3% / 미국의 활묵장어 수입 비중(수입량 기준) : 56.45% → 62.51%, 6.06%p ↑

* 對미 냉동묵장어 수입 : 4,170천\$ → 5,020천\$, 20.37% ↑ / 관세 감축폭 : (기준) 10% → ('12년) 9% → ('13년) 8%

*** 국내 묵장어 생산 : ('10년) 15톤 → ('11년) 23톤 → ('12년) 36톤

- (홍어) 냉동홍어에 대한 관세 인하로 홍어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여타국의 수입산과 경합**되어 국내산에 대한 영향은 미미

* 對미 냉동홍어 수입 : 7,355천\$ → 8,315천\$, 13.05% ↑ / 관세 감축폭 : (기준) 27% → ('12년) 24.3% → ('13년) 21.6%

** 대세계 냉동홍어 수입 : 8,728톤 → 8,485톤, 2.78% ↓ / 냉동홍어 수입국 : (아르헨티나) 2,680톤 → 3,320톤, 23.87% ↑, (칠레) 1,636톤 → 1,722톤, 5.24% ↑, (미국) 1,231톤 → 1,339톤, 8.80% ↑

- (정어리) 냉동 정어리에 대한 관세 인하로 정어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미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정어리의 대부분이 양식용 사료로 이용되며 기존 수입물량이 미국산으로 전환**

* 對미 냉동정어리 수입 : 420천\$ → 2,006천\$, 377.54% ↑ / 관세 감축폭 : (기준) 10% → ('12년) 8% → ('13년) 6%

** 대세계 냉동정어리 수입 : 9,458톤 → 7,358톤, 22.21% ↓ / 냉동정어리 수입국 : (캐나다) 4,834톤 → 2,107톤, 56.40% ↓, (멕시코) 3,238톤 → 2,420톤, 25.27% ↓, (미국) 503톤 → 1,849톤, 267.71% ↑

○ (기타 품목) 당초 수입 증가가 예상된 대구, 아귀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관세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중 가오리와 볼락의 수입은 증가

- (대구) 대구류에 대한 관세가 소폭 인하*된 가운데 냉동피레트의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냉동대구 등의 수입 감소로 인해 전체 수입 감소**

* 관세 감축폭(기준→'12년→'13년) : 냉동대구(10% → 8% → 6%), 냉동피

레트(10% → 9% → 8%), 신선냉장 대구(20% → 19% → 18%)

** 對미 대구류 수입 : 8,311천\$ → 7,196천\$, 13.41%↓ / 냉동대구(7,948천\$ → 6,673천\$, 16.04%↓), 냉동피레트(231천\$ → 475천\$, 105.54%↑), 신선냉장 대구(132천\$ → 48천\$, 63.69%↓)

- (아귀) 냉동아귀에 대한 관세가 소폭 인하*되었지만, 여타 수입산과 경합**으로 인해 수입 감소

* 對미 냉동아귀 수입 : 13,225천\$ → 12,173천\$, 7.95%↓ / 관세 감축폭 (기준) 10% → ('12년) 9.5% → ('13년) 9%

** 대세계 냉동아귀 수입 : 18,014톤 → 18,397톤, 2.13%↑ / 냉동아귀 수입국 : (중국) 14,312톤 → 15,476톤, 8.13%↑, (미국) 2,158톤 → 1,980톤, 8.24%↓, (브라질) 1,017톤 → 556톤, 45.31%↓

- (볼락) 냉동볼락(적어 포함)에 대한 관세가 소폭 인하된 가운데 볼락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피볼락과는 다른 기타볼락류(장문볼락)로 여타 수입산과 경합**

* 對미 냉동볼락 수입 : 2,051천\$ → 3,243천\$, 58.11%↑ / 관세 감축폭 : (기준) 10% → ('12년) 9.5% → ('13년) 9%

** 대세계 냉동볼락 수입 : 6,585톤 → 7,487톤, 13.69%↑ / 냉동볼락 수입국 : (포르투갈) 2,137톤 → 2,662톤, 24.61%↑, (아이슬란드) 1,730톤 → 1,717톤, 0.80%↓, (미국) 879톤 → 1,478톤, 68.03%↑

- (가오리) 냉동가오리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여타 수입산과 경합**되어 국내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對미 냉동가오리 수입 : 2,658천\$ → 3,086천\$, 16.10%↑ / 관세 감축폭 : (기준) 10% → ('12년) 9.5% → ('13년) 9%

** 대세계 냉동가오리 수입 : 7,589톤 → 8,209톤, 8.18%↑ / 냉동가오리 수입국 : (아르헨티나) 3,102톤 → 3,076톤, 0.84%↓, (브라질) 1,600톤 → 1,570톤, 1.89%↓, (미국) 1,128톤 → 1,174톤, 4.01%↑

Ⅱ. 對미국 수산물 수출 동향 분석

※ 주요 통계 수치의 비교 기간은 '11.3.15 ~ '12.1.31까지와 '12.3.15 ~ '13.1.31까지임

□ 한·미 FTA 발효 이후 '13년 1월 31일까지 FTA 발효 전 동기('11.3.15~12.1.31) 대비 수산물 수출은 1.64% 감소⁴⁾

○ 단, 한·미 FTA 발효 후 對미 굴 수출이 제한(2012년 5월)되었는데, 전체 수산물 수출 중 굴을 제외할 경우 전체 수출은 10.72% 증가^{*}

* 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세혜택품목인 김, 다랑어 등의 수출 호조로 증가

○ 對미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24% 감소(27,166톤 → 22,754톤)하였고, 굴을 제외한 수출물량은 5.65%(23,650톤 → 22,314톤) 감소

○ 수출액 상승은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상승 등이 원인

- 對미 평균 수출단가가 17.43% 상승(굴 제외시 17.35% 상승)하였고, 김, 붉은대게, 다랑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단가도 상승

* 對미 수산물 수출단가(\$/kg) : ('11.3.15~'12.1.31) 6.08\$ → ('12.3.15~'13.1.31) 7.15\$⁵⁾

* 對미 김 수출단가(\$/kg) : ('11.3.15~'12.1.31) 9.24\$ → ('12.3.15~'13.1.31) 11.78\$

* 對미 붉은대게 수출단가(\$/kg) : ('11.3.15~'12.1.31) 8.11\$ → ('12.3.15~'13.1.31) 10.35\$

* 對미 다랑어 수출단가(\$/kg) : ('11.3.15~'12.1.31) 6.29\$ → ('12.3.15~'13.1.31) 7.43\$

4)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11.3.15~'12.1.31) 대비 16.2% 감소 : 27,166톤 → 22,754톤

5) 전체 수출에서 굴을 제외하였을 때의 수출단가는 6.11\$ → 7.17\$로 17.35% 상승하였음

□ 품목별 영향 분석

○ FTA 관세혜택품목인 김과 다랑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붉은대게, 넙치(활어)**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對미 김 수출 : 35,382천\$ → 48,037천\$, 35.76% ↑ / 조제김(30,720천\$ → 44,327천\$, 44.29% ↑, 관세 감축폭 (기준) 6% → ('12년) 0%), 마른김(4,652천\$ → 3,339천\$, 28.23% ↓), 기타김(10천\$ → 371천\$, 3,537.62% ↑)

* 對미 다랑어류 수출 : 2,918천\$ → 3,542천\$, 21.38% ↑ / 기름담금 밀폐용기(2,001천\$ → 2,128천\$, 6.30% ↑, 관세 감축폭 (기준) 35% → ('12년) 33.2% → ('13년) 31.5%), 기타 밀폐용기(284천\$ → 1,020천\$, 259.49% ↑, 관세 감축폭 (기준) 6.0~12.5% → ('12년) 5.7~11.8% → ('13년) 5.4~11.2%),

** 對미 붉은대게살 수출 : 1,055천\$ → 5,475천\$, 419.04% ↑

** 對미 활넙치 수출 : 3,881천\$ → 5,366천\$, 38.26% ↑

○ 반면, 對미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의 경우 분석대상기간에는 감소하였으나,6) 연간 기준으로 볼 경우 FTA가 발효된 2012년의 수출은 전년(2011년) 대비 증가*

* 對미 오징어 수출

: ('11.3.15~'12.1.31) 19,250천\$ → ('12.3.15~'13.1.31) 14,817천\$, 23.03% ↓

: ('11.1~12) 15,835천\$ → ('12.1~12) 19,946천\$, 25.96% ↑

○ 2012년 5월 미FDA의 조치로 수출이 제한되었던 굴은 금년 수출제한 조치가 해제된 만큼 굴(통조림)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혜택*이 기대

* 관세 감축폭 (기준) 4.7% → ('12년) 4.2% → ('13년) 3.7%

6) 분석대상기간을 3월에서 익년 1월로 제한할 경우 단기의 특이한 현상이 과대평가되어 나타나는 문제로, 연간 수출실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였음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 달러, %

품 목	'11.3.15~'12.1.31(A)	'12.3.15~'13.1.31(B)	증감률(B/A)	관세율 변화	
				기존 관세	발효 후
전 체	165,296	162,582*	△ 1.64	-	-
김	35,382	48,037	35.76	0%(마른 김) 6%(조미 김)	즉시
기타어류	26,862	27,578	2.67	**	**
이빨고기	19,264	18,486	△ 4.04	0%	
오징어	19,250	14,817	△ 23.03	0%	
넙치(활어)	3,881	5,366	38.26	0%	
미역	5,753	5,206	△ 9.51	0%	
멸치	4,935	4,853	△ 1.67	5%(염장 염수장 밀폐용기)	10단계 균등철폐
				5%(조제, 저장처리)	3단계 균등철폐
				0%(기타)	
기타게	3,966	3,564	△ 10.12	**	**
다랑어	2,918	3,542	21.38	0%(신선냉장, 냉동)	
				1.1센트/kg, 6~35%(밀폐용기)	10단계 균등철폐
굴	20,697	2,489	△ 87.97	0%(냉동)	
				4.7%(밀폐용기)	10단계 균등철폐
붉은대게	1,055	5,475	419.04	0%(밀폐용기)	즉시
				5%(밀폐용기 이외)	3단계 균등철폐

주 : 1) 대미 수출품목 중 FTA 발효 후('12.3.15~'13.1.31) 실적이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대미 수산물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한 기준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 FTA 발효 후('12.3.15~'13.1.31) 전체 수산물 수출 중 굴 수출을 제외할 경우 전체 수출액은 144,599천\$에서 160,093천 \$로, 전기 수준 대비 10.72% 증가함

3) **기타어류와 기타게의 관세율 변화는 품목수의 다양성으로 인해 생략하였음

참고

주요 수산물 수입 동향(기간 : '11.3.15~'13.1.31)

구분	수입물량(톤)			수입금액(천\$)			수입비중(%)*		관세감축폭(%p)**	
	11.3.15~ '12.1.31	12.3.15~ '13.1.31	증감(%)	11.3.15~ '12.1.31	12.3.15~ '13.1.31	증감(%)	발효 이전	발효 이후	'11/'12	'12/'13
수산물	50,703	54,038	6.58	147,637	170,472	15.47	4.21	4.54	-	-
명태	12,529	13,586	8.43	35,743	44,446	24.35	5.27	5.87	4,000톤, 0.5~6.7	4,360톤, 0.5~6.7
기타어류	6,719	6,681	△0.57	21,055	28,241	34.13	3.96	3.88	***	***
가자미	10,889	13,602	24.91	20,597	26,455	28.44	45.97	48.29	1,530톤, 0.5~2.0	1,652톤, 0.5~2.0
떡장어	2,691	2,733	1.54	10,192	12,242	20.11	51.68	53.20	1.0~3.4	1.0~3.3
아귀	2,158	1,980	△8.24	13,225	12,173	△7.95	11.92	10.63	0.5~1.0	0.5~1.0
홍어	1,231	1,339	8.80	7,355	8,315	13.05	14.10	15.78	2.7	2.7
대구	4,000	3,621	△9.48	8,311	7,196	△13.41	19.00	16.76	1.0~2.0	1.0~2.0
임연수어	3,376	2,590	△23.28	5,248	5,182	△1.24	23.04	17.30	1.0	1.0
볼락	879	1,478	68.03	2,051	3,243	58.11	13.35	19.74	0.5	0.5
가오리	1,128	1,174	4.01	2,658	3,086	16.10	14.87	14.30	0.5	5.0
정어리	503	1,849	267.73	420	2,008	377.58	5.29	24.96	2.0~6.7	2.0~6.7
기타갑각류	41	87	113.44	770	1,988	158.13	3.64	5.59	***	***
해삼	45	33	△27.87	2,109	1,653	△21.62	10.99	8.37	4.0~6.7	4.0~6.7
연어	95	241	152.85	484	1,168	141.49	0.56	1.74	3.4~20.0	0~6.7
굴	0	186	9,284,0 00.00	0	1,077	1,736,3 58.06	0.00	47.23	5.0~20.0	-
키조개	73	44	△40.30	1,215	923	△23.99	9.26	5.82	1.0~2.0	1.0~2.0
멸치	21	82	296.03	312	916	193.41	2.60	8.28	2.0~20.0	0~6.7
기타게	151	74	△51.08	775	813	4.91	1.12	0.63	***	***
오징어	860	419	△51.27	1,346	809	△39.92	1.72	1.01	1.0~6.7	1.0~6.7

주 : 1) * 수입비중은 해당품목의 전체 수입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량 기준임

2) ** 관세감축폭 중 명태, 가자미의 수치는 당해연도의 TRQ물량 및 관세감축폭을 함께 제시하였음

3) *** 기타류의 관세감축폭은 생략하였음

참고

주요 수산물 수출 동향(기간 : '11.3.15~'13.1.31)

구분	수출물량(톤)			수출금액(천\$)			수출비중(%)*		관세감축폭(%)**	
	11.3.15~ '12.1.31	12.3.15~ '13.1.31	증감(%)	11.3.15~ '12.1.31	12.3.15~ '13.1.31	증감(%)	발효 이전	발효 이후	'11/'12	'12/'13
수산물*	27,166 (23,650)	22,754 (22,314)	△16.24 (△5.56)	165,296 (144,599)	162,582 (160,093)	△1.64 (10.72)	4.78 (4.23)	3.69 (3.65)	-	-
김	3,830	4,078	6.47	35,382	48,037	35.76	35.92	29.15	0~6.0	0
기타어류	3,448	3,796	10.07	26,862	27,578	2.67	5.05	6.20	***	***
이빨고기	925	980	5.98	19,264	18,486	△4.04	46.72	59.30	0	0
오징어	7,406	6,488	△12.40	19,250	14,817	△23.03	10.94	12.48	0	0
붉은대게	130	529	306.74	1,055	5,475	419.04	3.17	10.96	0~1.7	0~1.7
넙치(활어)	176	230	30.80	3,881	5,366	38.26	6.03	7.92	0	0
미역	1,548	1,434	△7.32	5,753	5,206	△9.51	10.42	12.91	0	0
멸치	658	554	△15.82	4,935	4,853	△1.67	57.46	52.22	0~1.7	0~1.7
기타게	424	270	△36.30	3,966	3,564	△10.12	11.35	11.70	***	***
다랑어	464	476	2.77	2,918	3,542	21.38	0.41	0.28	02센트/ kg 0~1.8	01센트/ kg 0~1.7
굴	3,516	440	△87.48	20,697	2,489	△87.97	35.63	7.33	0~0.5	0~0.5
기타활어	55	109	99.86	1,005	2,435	142.19	22.69	40.50	***	***
고등어	528	579	9.63	2,059	2,278	10.64	1.34	1.12	0~1.0	0~1.0
꼴뱅이	239	206	△13.71	1,940	1,756	△9.49	72.66	71.26	0~1.0	0~1.0
기타해조류	255	169	△33.85	1,468	1,668	13.59	21.35	15.82	***	***
기타연체동물	197	237	19.91	1,409	1,623	15.19	4.90	7.41	***	***

주 : 1) * ()안의 수치는 굴을 제외하였을 경우의 수출 실적임

2) ** 수출비중은 해당품목의 전체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량 기준임

3) *** 기타류의 관세감축폭은 생략하였음